

**필립스, 반도체 사업부문 매각으로, 라이프스타일 회사로 대변신**



로열 필립스 일렉트로닉스(Royal Philips Electronics, 뉴욕 증시: PHG, 암스테르담 증시: PHI, 이하 '필립스')는 자사 반도체 사업부문(Philips Semiconductors)에 대한 보유지분 80.1%를 콜버그 크래비스 로버츠(Kohlberg Kravis Roberts & Co.: KKR), 실버레이크 파트너스(Silver Lake Partners) 및 알프인베스트 파트너스(Alpinvest Partners NV) 등 사모펀드 컨소시엄에 매각하기로 합의한데 이어, 자본 배분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다. 필립스 반도체 사업부문에 대한 가치는 약 83억 유로(약 10조 2천억 원)로 예상되었다.

동시에, 필립스는 사업구조적으로 수익성 높은 신규 고성장 부문에 재투자한다는 전략을 발표했다. 지난 1년 동안 필립스는 주로 메디컬 시스템(Medical Systems), 조명(Lighting) 및 컨슈머 헬스 앤 웰니스(Consumer Health and Wellness) 등의 사업분야에서 약 35억 유로(약 4조 3천억 원)를 투자해 8개 신규 사업(현재 협상 중인 사업 포함)을 인수했으며, 이러한 신규 사업을 통해 약 10억 유로(약 1조 2천억 원)에 이르는 새로운 부가수익을 창출하고, 5천 명 이상의 인력을 고용했다.

**목시디지털 인간의 표정 흉내내는 '콘투어 실사 시스템'을 개발**



3차원 디지털배우를 제작하는 비용을 기존의 1%가격으로 만드는 기술이 개발됐다. 또 내년 초에는 보통영화를 값싸게 3차원 입체영화로 볼 수 있게 하는 극장용 3D영상시스템이 등장한다.

파이널환타지, 폴라익스프레스에 나오는 3차원 디지털 배우를 현재의 100분의 1 비용으로 만들 수 있는 첨단 영상기술이 실용화됐다고 로이터통신이 7월 31일 보도했다. 한편 입체 음향기술로 유명한 영국의 돌비도 극장용 3D영상시장에도 진출한다고 C넷이 보도했다.

스티브 펄만 목시디지털 회장은 인간의 표정까지 흉내내는 디지털 배우를 값싸게 구현하는 '콘투어 실사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보스턴의 한 그래픽 전시회에서 발표했다.

이 제품은 여러대의 카메라로 캡처한 사람의 입체적 표정을 영화, 비디오게임 등의 가상 캐릭터에 손쉽게 반영할 수 있다. 따라서 실감나는 3차원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위해 수작업 공정을 거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스티브 펄만은 그동안 입체적인 디지털

배우가 등장하는 장면 하나를 만드는데 수십만 달러가 들었지만 이 제품을 도입하면 제작비용이 1000~2000달러로 줄어든다고 장담했다. 할리우드는 '콘투어 실사 시스템'이 제 성능을 발휘할 경우 영화제작과 애니메이션, 비디오 게임 등의 3D기술에 혁신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니, 620만화소 최신 디지털카메라 공개**



소니가 8월 7일 도쿄 본사에서 620만화소 CCD와 칼치즈 렌즈를 갖춘 최신 디지털카메라 'DSC-W50'을 공개했다. 소니는 9월 8일 이 제품을 3만엔(약 25만원)에 출시한다고 발표했다.

**인텔, 미디어 시그널링 사업부문 매각**

인텔이 비용절감을 위한 구조조정 일환으로 자사의 미디어 시그널링 사업 부문을 통신장비업체 '에이콘 네트워크(Eicon Networks)'에 매각하기로 했다고 C넷이 8월 9일 보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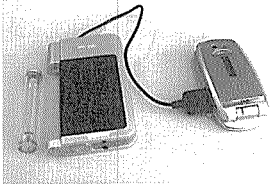
인텔은 4~6주 내 거래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현재 규제 검토와 일반적 거래 마감 절차만을 남겨놓고 있다고 밝혔으나 매각 금액에 대해서는 공개를

거부했다.

미디어 시그널링 사업은 인터넷전화 (VoIP) 등 디지털 통신망에 데이터와 음성을 처리하는 소프트웨어(SW) 및 하드웨어(HW)를 공급하는 업종이다.

**일본 휴대폰에 '연료전지' 사용**

일본에서 휴대폰 전원으로 '연료전지'를 사용하는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8월 8일 NTT도코모, KDDI, 후지쯔, 히타치제작소, 도시바 등 일본의 이동통신사업자 및 전자업체들이 휴대폰용 연료전지를 속속 개발, 시제품을 내놓고 있다고 보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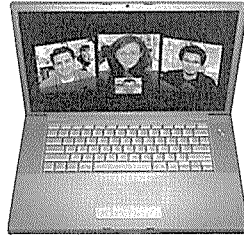
특히 NTT도코모는 당장 내년 봄에 휴대폰 외장용 연료전지를 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료전지는 천연가스와 메탄올 등의 연료를 화학반응시켜 전기를 얻어내는 차세대 배터리로 현재 가전제품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리튬이온전지에 비해 전지용량을 2~3배까지 확장시킬 수 있다. 또 기본적으로 물 밖에 배출하지 않는 환경친화적 제품이어서 세계 각국에서 자동차, 가정용 전력 외에도 휴대폰, 노트북PC 등의 장착을 목표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본에서 휴대폰용 전원으로 연료전지가 급부상하고 있는 배경에는 단말기 고성능화에 따른 전력 소비량 증가가 있다.

**애플사, 맥북 프로 배터리 일부 제품 리콜**

애플 컴퓨터가 15인치 맥북 프로 (Mac Book Pro) 노트북의 배터리에 대한 리콜을 시행한다.



애플은 자체 무료 배터리 교환 프로그램에 따라 고객들이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6개월 사이에 구입한 15인치 맥북 프로의 배터리를 교체해 줄 계획이라고 C넷 등 외신이 7월 31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애플은 성명에서 "최근 애플에 제공된 15인치 맥북 프로의 일부 배터리가 우리의 높은 배터리 성능기준에 미달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리콜 배경을 설명했다.

이 배터리들은 사용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사용자들은 교체 배터리를 받기까지 기존 제품을 사용해도 된다고 밝혔다.

**IBM이 음성인식기술 개발에 힘써**

IBM이 8월 7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스피치테크(SpeechTEK) 콘퍼런스 개막식에서 독일 업체인 디티엠에스 솔루션스가 자사의 음성인식 SW를 판매하기로 했으며 영국의 아웃라이트와 독일의 스피치콘셉트가 이 SW를 사용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을 발표, 자신들이 음성인식기술 개발에 힘쓰고 있음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레드헤링은 IBM이 '바이어보이스 (ViaVoice)'와 '로터스 스마트스위트

(Lotus SmasrtSuite)' 같은 PC기반 SW에 음성인식기술을 적용해 온 IBM은 이 기술을 콜센터와 자동차 및 웹스피어 같은 서버용 SW용으로도 개발하고 있다.

고객들은 음성기술로 자신들의 은행 계좌를 체크하고, 청구금액을 지불하고, 전화로 자체 서비스 시스템을 통해 제품 운송 일정에 접속할 수 있게 된다.

IBM은 또 자사의 음성인식 SW인 '웹스피어 보이스 서버'를 사용하는 고객사 2곳도 소개했다. 영국의 보험 중개업체인 '아웃라이트(OutRight)'는 전화 통화를 연결하는 데 이 SW를 사용하고 있으며, 독일의 음성 기술 전문업체인 '스피치콘셉트(SpeechConcept)'는 이 SW를 고객사인 보이스웹원(VoiceWebOne)에 제공하고 있다. 보이스웹원은 사람들이 가까운 거리의 피자 업체·CD 판매업체·기타 정보 등을 찾으면 그 곳으로 전화를 걸도록 연결하는 접속 서비스를 운영한다.

**모토로라, 슬라이드폰 최초로 선보여**

모토로라는 7월 25일 오는 성탄절 시즌에 맞춰 '라이저 (Rizr)(사진)'라는 슬라이드형 단말기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모토로라측은 한국에서 유행하는 슬라이드형 단말기를 내세워 지난 8년만에 최고기록인 22%의 세계시장 점유율을 더욱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기존 레이저폰보다 덩치가 작고 2메가픽셀 카메라, MP3기능을 내장한 크레이저(Krizr)라는 신형 단말기도 3분기 중에 출시한다고 덧붙였다.